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 경 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만9세 이전의 음악적 경험이
음악성 신장에 미치는 영향

2008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오 누리

만 9세 이전의 음악적 경험이
음악성 신장에 미치는 영향

현 경 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오 누 리

국 문 초 록

미국의 음악교육학자 고든(Edwin E. Gordon)은 음악성은 태어나면서부터 9세 이전에 형성되며 그 이후에는 고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많은 음악교육학자들은 이에 동의하며 어릴 적의 음악교육을 권장한다. 이 연구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음악성이 형성되는 만 9세 이전에 음악적 경험을 한 학습자의 음악성이 그렇지 못한 학습자와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이는 어릴 적의 음악적 경험이 음악성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에 소재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71명이고 연구 도구로는 학생들의 음악적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제작한 설문지와 현경실 교수가 제작한 ‘한국음악적성검사’가 사용되었다. 자료의 처리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의 음악적 흥미, 가정환경, 음악적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하였으며 이변량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만 9세 이전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음악성은 만 9세 이후에 음악을 배운 학생보다 높게 나왔다.

둘째, 개인의 음악에 대한 흥미와 음악성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다.

셋째, 가정환경과 음악성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다.

넷째, 학교 음악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과 음악성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실험을 통해 음악을 배운 시기가 이룰수록 음악성이 발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어릴 때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음악성이 신장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2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유아기 음악교육의 중요성	4
2. 음악성의 정의	6
3. 만 9세 이전의 음악성 발달	8
4. 선행연구 고찰	12
III. 연구방법	15
1. 연구대상	15
2. 연구도구	15
3. 연구절차	20
4. 자료처리	20
IV. 연구결과 및 해석	21
1. 검사 신뢰도	21
2. 빈도수	22
3. 상관관계	40
V. 결론	47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표 목 차

<표-1> 설문지 문항 내용 -----	17
<표-2> 리듬 신뢰도 표 -----	21
<표-3> 가락 신뢰도 표 -----	21
<표-4>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	22
<표-5>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	23
<표-6> 가족 중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	24
<표-7> 누가 악기를 다룰 줄 압니까? -----	25
<표-8>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 하십니까? -----	26
<표-9> 학교에서의 음악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습니까? ---	27
<표-10> 어떤 음악을 배웠습니까? -----	28
<표-11> 언제부터 음악을 배웠습니까? -----	29
<표-12> 위 음악을 현재까지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까? -----	30
<표-13> 언제 음악을 그만두었습니까? -----	31
<표-14> 왜 그만두었습니까? -----	32
<표-15> 음악을 배운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	34
<표-16> 어떤 음악을 배우고 싶습니까? -----	35
<표-17> 현재 하고 있는 음악 활동이 있습니까? -----	36
<표-18>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37
<표-19> 위 음악 활동은 언제부터 하였습니다습니까? -----	38
<표-20> 음악 활동의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	39
<표-21> 음악 활동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	40
<표-22> 설문문항과 리듬점수 · 가락점수와의 상관관계 표 -----	41
<표-23> 개인의 흥미 간 상관관계 -----	43
<표-24> 가정환경과 개인 흥미 간 상관관계 -----	44
<표-25> 개인의 음악 경험과 개인의 흥미, 가정환경과의 상관관계 ---	45
<표-26> 음악을 배운 시기와 개인의 흥미 간의 상관관계 -----	46
<표-27> 개인의 음악적 경험과 개인의 흥미, 가정환경과의 상관관계 --	46
<표-28> 개인의 흥미 간, 개인의 흥미와 개인의 음악적 경험 간의 상관 계수 -----	4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든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소리는 인간에게 유익한 느낌을 주는 소리도 있고 악영향을 끼치는 소리도 있다. 이런 소리들이 조직화되어서 비로소 음악이 된다. 다시 말해서 조직화 된 소리를 음악이라고 한다.¹⁾ 음악은 한 사회에서 형성된 음악에 대한 지식, 가치, 태도의 총체로써 어느 문화권에서나 중요한 문화유산 중 하나이며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음악을 여러 가지 의식이나 크고 작은 규모의 행사에 사용하여 그 목적과 흥을 돋우었고, 감정을 표현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해왔다. 이러한 음악은 현재까지도 인간의 생활에서 중요한 매개체이다. 음악은 목소리를 통하여, 악기를 통하여, 창작을 통하여 단순한 감정에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 내면의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소리를 경험하게 되고 소리로 이루어진 음악을 접하게 된다. 초기에 경험하는 음악에 대한 느낌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초기에 해당하는 유아기는 음악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미국의 음악교육학자 고든은 음악성은 태어나면서부터 9세 이전에 형성되며 그 이후에는 고정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9세 이전까지는 환경이나 교육에 의해서 음악성이 개발될 수 있지만 9세 이후에는 환경이나 교육에 의해서 음악성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드너(Howard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곱 가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 음악적 지능 역시

1) Chals R. Hoffer, 안미자 역, 『음악교육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p.12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능 중 하나인데, 그는 성장하면서 어떠한 음악적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음악적 지능에 대한 개인차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지능을 발달시킬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음악적성을 발달시키는데 환경적 조건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음악성은 유아기 음악 체험의 질과 양상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만약, 교사가 음악적 성장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음악 체험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그 체험은 그들의 음악적 능력의 발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²⁾ 이것은 유아기의 발달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이 후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도 음악성의 습득이 어렵고, 이에 맞는 적절한 음악적 체험의 여부에 따라 음악성의 발달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유아기의 음악경험은 이 후에 경험하게 되는 음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 때 형성되는 음악성은 이 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극복하기 어려울 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음악성이 형성되는 만9세 이전에 음악경험을 한 학습자의 음악성이 그렇지 못한 학습자와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어릴 적의 음악적 경험이 음악성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만9세 이전의 음악적 경험과 음악성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국내외 문헌들을 참고하여 설문지와 음악성 검사지를 통하여 음악성을 검사하도록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2)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1990 pp. 102~103.

1) 만9세 이전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과의 음악성에는 상관이 있는가?

2) 음악성과 개인의 음악에 대한 흥미, 가정환경, 개인의 음악적 경험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첫째, 서울시내 초등학교 2곳을 대상으로 음악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유아기 음악교육의 중요성

사람의 지능은 대부분 유아기에 완성된다. 특히 창의력이나 논리적인 사고력을 좌우하는 우뇌의 기능은 6세를 전후로 가장 활발한 지능 발달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취학 전의 유아가 어떠한 교육적 환경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는 이후 성인이 되어서의 능력과 인성이 결정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유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발달이 미숙한 상태이고 사회적으로도 자기중심적 경향이 강하여서 이 시기의 교육은 이후 유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³⁾

유아기의 다양한 교육 가운데 음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데 미숙한 유아에게 있어 음악은 언어처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에게 있어서 음악은 곧 생활이다. 즉, 음악은 다른 학문 영역과는 달리 유아의 생활 속에 존재하며, 자연스럽게 학습될 수 있는 영역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능 가운데 음악적 지능은 가장 먼저 나타난다. 유아기는 다른 감각에 비해서 청각이 가장 민감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음고의 판별력이나 리듬감수 능력이 가장 급속히 발달하여 성인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유아에게 적절한 음악환경과 다양한 음악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이후 유아의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⁴⁾

음악교육은 유아의 지각 발달을 돕는다. 리듬감을 갖고 음을 흡수하는 음악

3) 안재신, 『유아음악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4 pp. 11~12.

4) 이진우·이순영, 『유아음악교육』, 서울: 창지사, 2001 p. 14.

적 활동은 활발한 감각적 경험과 활동을 요하는 예술 학습으로 높은 수준의 지각 발달을 가져온다. 음악적인 측면에서의 지각은 감각의 자극 없이는 그 기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음악의 기초 감각 능력이 급속한 진전을 보이는 유아기의 음악교육에서는 음악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 단계로 감각의 발달을 중시하여야 한다. 또한 음악교육은 유아의 신체발달을 돕는다. 유아는 본능적으로 음악을 들으면 움직이고 싶어 한다. 음악은 주로 춤을 추거나 다른 신체적 활동을 할 때 사용되는데, 신체적 활동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자주 들었던 음악을 들을 때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유아들은 소리에 따라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자신의 감정을 신체로 표현하게 된다.

이 외에도 유아기의 음악교육은 유아의 인지발달과 언어의 발달을 도우며 사회성 및 정서의 발달을 돕는다. 소리의 탐색 및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는 경험을 통해 유아는 소리에 대한 이해 및 듣기 기술을 증진시키고, 노래배우기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학습할 수 있으며, 음악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출하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감정의 표현 및 정서의 발달을 도울 수 있다. 5) 따라서 음악과 학습을 병행하게 되면 유아는 학습에 흥미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하여 학습의 효과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음악은 일생 동안 유아의 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만5~6세에는 청각능력 뿐 아니라 음고의 판별력과 리듬감수 능력이 급속히 발달하여 성인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음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없으면 그 기회를 만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음악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유아기는 음악적 감수성을 개발하기 위한 최적기이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음악활동과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음악적 경험을 통한 음악성의 발달은 일생동안의 음악활동의 질을 결정하는 바탕이 될 것이며, 한편 이 시기를 놓치면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5) 안재신, 『유아음악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4 p. 13.

그 성장이 매우 둔하거나 기대할만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기는 음악성 발달을 돕는 적절한 환경과 경험의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유아의 연주능력이나 표현 기술을 익히는 등의 능력을 신장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제 요소들에 대하여 반응하는 음악적 감수성을 더욱 민감하고 풍부하게 발달시킴으로써 음악에 대한 흥미감을 확장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⁶⁾

2. 음악성의 정의

모든 사람은 음악적 존재이므로 음악성은 인간의 보편적 능력이며, 모든 사람은 음악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68% 정도는 평균적인 음악성을 가지고, 14%는 좀 덜 음악적이며 14%는 좀 더 음악적이다. 단지 2% 정도만이 매우 재능을 타고났고, 2%는 낮은 음악적 재능을 가진다. 완전히 지능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듯이 완전히 음악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지능적이듯 모든 사람이 음악적이다.⁷⁾

음악 교육학자인 고든은 모든 유아들은 음악성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하였고, 음악 심리학자인 칼 시쇼어(Carl Seashore)는 음악성을 타고난 능력의 집합체로 간주하였다. 또한 가드너는 음악성은 음악에 대한 특별한 감각과 다른 지적 능력과의 관계를 밝혀 준다고 하였다.⁸⁾

음악성은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의 자극에 반응하는 상태, 즉 음악의 미적 가치에 반응하는 정도로서 이는 태어날 때부터 각자가 지닌 유전적 요인도 있으나 환경을 통하여 음악을 경험하는 정도에 따라 그 능력의 발달되는 환경적 요인도 있다.

6) 임혜정 지음, 『유아 음악 교육』, 서울: 태영출판사, 2006 p.14.

7) 상계서, p.19.

8) 김인실 저, 『유아 음악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형설출판사, 2001 p.25.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음악성이 발달된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음악에 반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는 관점이다. 머셀(Mursell)은 양친 중 어느 한 쪽이 음악적이면 자녀들이 대체로 음악적이고, 양친이 모두 음악적이면 자녀들이 음악적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음악성이 발달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 환경과 질 좋은 음악교육이 제공되는 만큼 음악성이 발달된다고 보는 것이다. 고든은 음악성이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잠재력이라고 정의하며 그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⁹⁾

첫째,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음악적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둘째, 타고나는 음악적 자질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

셋째, 음악적 자질은 타고나는 것 이상으로 환경적 요소가 중요하며, 어릴수록 그 미치는 영향이 크다.

넷째, 9세 이전에 음악적 자질은 모두 형성된다. 제일 중요한 시기는 태어나서 18개월까지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시기는 3세~5세까지이다. 태어난 직후의 음악성이 가장 높다.

다시 말해 만9세 이후의 음악성은 고정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고정적성 단계에서는 어떠한 음악적 환경에서도 음악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즉, 인간의 음악성은 만9세까지는 유동적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시기가 지나면 고정된다는 것이다.

음악성에 대한 유전적 관점이나 환경적 관점에 대하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음악성은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중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고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음악적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환경과 교육에 의해 개발되지 않는다면 음악적 능력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9) 상계서, p.26.

3. 만 9세 이전의 음악성 발달

(1) 만 0세~만 2세

생후 2개월 동안의 유아는 소리 나는 방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주변의 소리를 구별해 낸다. 이것은 음색에 대한 청각각이 있음을 뜻한다. 2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는 소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찾아냄으로써 청각각과 시각이 일치되는 반응을 보이고 음색뿐만 아니라 소리의 세기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¹⁰⁾

생후 6개월에서 1년 동안에는 소근육이 발달하는 시기로써 다양한 소리의 변화를 식별할 수도 있고 간단한 음절어를 모방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주변에 있는 소리 나는 물체는 어떤 것이던 간에 음악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도리도리’, ‘잼잼’등의 간단한 찬팅은 유아의 음악적 능력과 언어발달을 돕는 좋은 음악 소재이다. 특히 ‘도리도리’는 ‘돌리다’라는 말에서 연유된 여아 놀이노래로서 8개월 전후의 아기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아기를 돌보는 어른들이 불러주는 노래이다. ‘도리도리’의 음악적 구조는 완전 4도, 12/8박자로 되어 있다. ‘도리도리’의 노랫말은 전라도에서는 ‘도레도레’, 제주도에서는 ‘마니마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같은 시기에 부르며 놀이하는 ‘잼잼’은 아기가 양손을 오므렸다 폈다를 연속적으로 동작하며 눈과 손의 협응을 강조하는 파악반사 놀이이다. 이 곡의 음악적 구조는 완전4도, 12/8박자로 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충청도와 전라도에서는 ‘좌좌’, 강원도에서는 ‘잠잠’, 경상도에서는 ‘쫓막쫓막’, 제주도에서는 ‘조메조메’라고 부르기도 한다.¹¹⁾

만1~2세에는 비음악적인 소리와 음악적인 소리를 구별하게 되며 음색, 셈여림과 음악의 높낮이, 간단한 리듬의 개념을 형성하지만 표현에는 아직 미숙

10) 김영연 저, 『유아 음악 교육론』, 서울: 학지사, 2002 p.101.

11) 상계서, p.102.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나오면 흥에 겨워서 몸을 흔들기는 해도 리듬이나 박자와 전혀 무관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2) 만 2세~만 3세

노래 부르기에 있어 소리를 가다듬기 시작한다. 놀이를 하면서 흥얼거리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또한 음악의 박자에 맞추어 손뼉을 친다거나 악기를 연주하려고도 한다. 이 시기에 어린이의 창의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때에 어린이는 계속적으로 소리와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음악에 대한 집중력과 감상력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가만히 앉거나 누워서 몇 분씩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주변의 말소리나 책 또는 동요 속에서 반복되는 구절을 매우 좋아한다. 이 시기에 운동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무릎을 굽힐 줄 알게 되고 몸을 흔들고 음악에 맞추어 발을 구르기도 한다.¹²⁾

(3) 만 3세~만 4세

3세가 되면 하나의 프레이즈로 구성된 간단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박자에 맞추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며 리듬 패턴에 맞추어 손뼉을 칠 수도 있다. 그리고 몸의 움직임을 통해 큰 소리, 부드러운 소리, 빠르고 느리다는 음악적인 요소를 개념화 할 수 있게 된다.

4세가 되면 사회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크게 과장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노래로서 의미 없는 말(nonsense words)을 하기 좋아하고 또는 우스갯말로 하는 노래나 운율붙이기를 좋아한다. 유아가 점차 그룹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유아들이 부르는 노래의 음에 맞추어 노래하게 되는 것은 유아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음을 맞추게 됨으로써 음악에 맞추어 움직이는 유아의 활동은 점차 정확해진다.¹³⁾

12) 김인실 저, 『유아 음악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형설출판사, 2001 p.22.

(4) 만 4세~만 5세

이 시기에는 표현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여러 활동의 동시 작업(노래하면서 손뼉치기 등)이 가능하며 자작곡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창작성을 보이기도 한다.¹⁴⁾ 그리고 손가락 운동이 자유로워져서 피아노의 양손 연습이 가능하게 된다. 이미 확장된 음역이나 리듬감과 어휘는 유아로 하여금 다양한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유아는 음악적 화음에 따라 더욱 몸 움직임을 잘 하게 된다.

5세가 되면 대체로 다른 사람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 자신의 음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소리를 나타내는 시각적 상(visual icons)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즉흥적으로 음악을 만들고 조직하고 기억하고 소리들이나 음악적 아이디어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키워간다. 이 시기는 굉장히 활동적인 시기로 전신운동에서부터 점차 부분적인 독립운동 시기로 발전해 나간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고 간단한 화음연주도 가능하다. 또한 그룹 활동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고 혼자서든 협동해서든 음악을 시도해 보고 수행해 나간다.¹⁵⁾

(5) 만 6세~만 7세

이 시기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소리의 높고 낮음, 길고 짧음, 음색 등을 분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특징에 따라 신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들려주는 흐름결과 가락을 정확한 소리로 따라 낼 수 있으며, 어떤 사물의 움직임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소리를 자신의 소리로 전환할 수도 있다. 또, 소리의 진행 방향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음높이를 기억할 수도 있다. 음악을 들을 때에는 주로 흐름결과 가락에 중점을 두고 듣지만, 화음을 지각하기 시작하고 음향을 통해 특정한 대상을 상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음 현상을 시각적인 상징과 관련지

13) 상계서, p.23.

14) 김영연 저, 『유아 음악 교육론』, 서울: 학지사, 2002 p.103.

15) 김인실 저, 『유아 음악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형설출판사, 2001 p.24.

을 수 있고, 음 현상이나 음악적 느낌을 어휘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된다.¹⁶⁾

(6) 만 8세~만 9세

이 시기는 초등학교 3~4학년의 시기로 청각각과 음악 사고력이 특히 발달한다. 청각각은 소리의 높고 낮음, 길고 짧음, 화음, 음색, 음질 등의 모든 물리적 음향 상태를 식별하는 능력을 뜻한다. 청각 기관을 통해 들려오는 음향이 어떤 것인가를 식별하는 감각의 예민성은 음악을 수용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이 시기의 청각각은 일생 중 가장 예민한 상태로 이후부터는 점차 쇠퇴한다. 따라서 이 시기까지 청각각을 충실하게 발달시키지 못하면 이 후 청각각이 필요한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인지 발달 단계 상 수 개념이 충분히 발달하고 음계 조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 수리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 말은 악보의 학습이 시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신체 발달의 측면에서도 빠른 성장을 보인다. 그리고 음악에 대한 기호를 확고하게 형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음악적 기호는 만 9세까지 어떤 음악을 가장 많이 접해왔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특히 이 시기에 어떤 음악을 많이 체험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¹⁷⁾

4. 선행연구 고찰

음악성에 관한 논문으로는 유성욱의 『유아의 음악경험과 음악성 발달과의 관계 연구: 아마데우스(Amadeus)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신주현의 『가정의 음악환경과 예술교육 경험이 유아의 음악능력에 미치는 영향』, 홍희숙의

16) 이홍수 저,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p.135.

17) 상계서, p.169~170.

『가정의 음악적 환경에 따른 유아의 음악선호도 및 음악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유성옥은 『유아의 음악경험과 음악성 발달과의 관계 연구: 아마테우스(Amadeus) 프로그램을 중심으로』에서 유아음악수업 프로그램의 하나인 아마테우스 프로그램을 경험한 유아들과 경험이 없는 유아들의 음악성을 비교하였다. 전주시내에서 아마테우스 프로그램으로 음악수업을 하고 있는 유치원 2곳을 선정하여 아마테우스 프로그램으로 교육받은 유아들과 아마테우스 프로그램으로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유아들을 각각 30명씩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PMMA 음악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아마테우스 프로그램과 음악성발달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아마테우스 프로그램은 유아들의 음감, 리듬감 능력수준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주현은 『가정의 음악환경과 예술교육 경험이 유아의 음악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정의 물리적 음악환경과 심리적 음악환경에 따른 음악능력 차이와 유아의 예술교육 경험에 따른 음악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정의 물리적 음악환경은 일반적으로 오디오, 음반, CD, TV, 피아노와 악기 등 음악연주 기능을 기를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며, 심리적 음악환경은 부모나 형제의 관심과 기대, 정서적인 배경 등을 포함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에 위치한 4개 어린이집의 만 4, 5, 6세 유아 227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부모에게 음악환경 설문지 227부를 배부하여 222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가정의 음악적 환경과 예술교육경험으로 분류하여 이를 대상으로 PMMA 음악적성검사를 실시하였다. PMMA 음악적성검사에서는 음감 40점, 리듬감 40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 80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설문에서 나타난 가정의 물리적 음악환경, 가정의 심리적 음악환경, 유아의 조기 예술교육경험과 PMMA 음악적성검사에서 나타난 음악적성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0.0을 이용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정의 물리적 음악환경과 음악능력의 관계는 물리적 음악환경에 따라 음악능력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심리적 음악환경과 음악능력 역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조기 예술교육경험에 따른 음악적성을 보면, 예술교육경험이 있는 집단과 예술교육경험이 없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아의 예술교육경험에 있어서 다양한 교육경험이 많은 집단의 유아가 교육경험이 적은 집단의 유아에 비해 더 높은 음악적성을 나타내었고, 예술교육경험의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음악적성을 나타내었다.

홍희숙은 『가정의 음악적 환경에 따른 유아의 음악선호도 및 음악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에서의 음악적 환경에 따라 유아의 음악 선호도와 음악 능력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음악선호도와 음악능력발달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전라북도 J시에 위치한 K유치원에서 임의로 선정한 유아집단과 부모집단 50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실시되었다. 부모에게는 설문지를 통하여 음악적 환경을 조사하였고, 음악선호도는 고전음악, 대중음악, 동요, 전통음악으로 분류하여 음악의 종류에 따라 12곡을 선정하여 녹음테이프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음악능력발달검사는 로트 (Lote)와 월리 (Walley)의 Recording Skill Development in Music에 제시된 총 89개 문항을 1982년에 최영숙이 번안 제작하였는데 이 검사는 듣기, 리듬표현, 노래부르기, 악기다루기, 창의력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2002년에 송연아에 의해 32문항으로 수정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수정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가정의 음악적 환경수준이 중위집단인 유아들의 고전음악관심도가 상위집단의 유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중음악, 전통음악, 동요는 가정의 음악적 환경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의 음악적 환경수준과 유아의 음악능력발달에 따른 차이는 가정의 음악적 환경수준이 상위집단에 속하는 유아들의 음악능력발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음악선호도 및

음악능력발달간의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음악을 좋아하는 유아일수록 음악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논문에서는 유아의 음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유아기의 경험이 유아기 이후의 음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연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만9세 이전의 음악적 경험이 음악성 신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A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0명과 B초등학교 6학년 학생 75명으로 하였다. 이 중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응답한 4명을 제외한 총 17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는 초등학생의 음악적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와 현실이 개발한 ‘한국음악적성검사’가 사용되었다.

(1) 설문지

설문지는 초등학생의 음악에 대한 흥미와 가정환경, 개인의 음악적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음악에 대한 흥미를 알아보는 항목에서는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는지,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리고 가정환경에 대한 항목에서는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시는지, 가족 중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음악적 경험으로는 학교음악시간 외에 학원이나 가정에서 음악을 배워본 경

험이 있는지와 합창단, 합주단, 성가대 등의 음악활동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학교음악시간외의 음악을 배워본 경험에 대하여는 경험이 있다면 어떤 음악을 배웠고,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배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현재 배우고 있지 않다면 언제 그만두었고, 그만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음악을 배운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음악을 배운 경험은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음악을 배우고 싶은지 질문하였다.

합창단, 합주단, 성가대 등의 음악활동 경험에 대하여서는 이와 같은 음악활동 경험에 있는지를 묻고 이 활동들을 언제부터 했으며, 현재에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경험이 없다면 기회가 되면 음악활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묻고, 하고 싶다면 어떤 종류의 음악활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를 통하여 만9세(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음악활동을 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음악성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설문지의 각 문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설문지 문항 내용

구 분		문 항 내 용
음악에 대한 흥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는가? ·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가정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중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다면 누가 악기를 다루는가? ·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가?
개인의 음악적 경험	학교 외 음악수업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다면 어떤 음악을 배웠는가? 언제부터 음악을 배웠는가? 현재에도 배우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고 있다면 현재의 진도는 어디인가? - 배우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만 두었을 때의 진도는 어디인가? - 없다면 앞으로 음악을 배우고 싶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고 싶다면 어떤 음악을 배우고 싶은가?
	학교 외 음악활동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하고 있는 음악활동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다면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고 있는가? 언제부터 위의 활동을 시작 하였는가? - 현재 음악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은가?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고 싶은가?

(2) 한국 음악적성 검사

이 연구에서는 현경실이 한국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4년에 개발한 ‘한국 음악적성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한국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측정해 객관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각 학생의 음악적 차이와 각 개인의 우수한 부분과 열등한 부분을 미리 진단하여 방과 후 수업이나 개인 레슨, 앙상블 등을 할 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음악교수법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높은 음악적성을 가진 학생을 가려내어 전문가로서의 음악활동 참여를 촉진시키며 정책이나 행정의 방향 설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음악학교, 교육대학교 등의 입학 사정자료로도 쓰일 수 있고, 연구나 프로젝트에 있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측정도구가 될 수도 있다.¹⁸⁾

이 검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¹⁹⁾

첫째, 듣기 검사이다.

둘째, 개인은 물론 그룹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검사이다.

셋째, 짧은 시간 안에 검사를 실시하여 음악적성을 짚 수 있다.

넷째, KMAT는 실제 음악을 사용하여 만든 검사이다.

다섯째,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채점도 쉽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여섯째, IQ나 학습능력과는 상관없이 음악적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일곱째, 음악을 배운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음악적성도 측정할 수 있다.

여덟째, 학생들이 이 검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악보를 읽는 능력이나 쓰는 능력 또는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 등 다른 음악적 능력이 필요 없다.

한국 음악적성 검사는 리듬감을 검사하는 리듬검사와 음감을 측정하는 가락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하위검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²⁰⁾

18) 현경실 저, 『한국 음악적성 검사』, 서울: 학지사, 2004 pp.18~19.

19) 상계서, pp.16~17.

20) 상계서, pp.44~46.

가. 리듬 검사

한국 음악적성 검사의 리듬 검사는 모두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이 시작되기 전에 타악기 소리로 한 마디 길이의 예비박이 주어진 후 두 마디로 된 두 가지 리듬이 제시된다. 피험자들은 제시된 두 개의 리듬패턴을 듣고 ‘같은가’, ‘다른가’를 구별하여 답한다.

리듬 검사는 3/4, 4/4, 6/8, 12/8박자의 순으로 제시되며 각각의 박자에 해당하는 문항 수는 6문항, 8문항, 6문항, 10문항이다. -이 중 12/8박자는 국악문항이다.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의 비율은 2:1로 서양음악이 20문항, 국악이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가락 검사

한국음악적성검사의 가락 검사는 모두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이 시작되기 전에 타악기 소리로 한 마디 길이의 예비박이 주어진 후 리듬의 요소가 배제된 한 쌍의 가락 패턴이 제시된다. 피험자들은 이 패턴을 듣고 ‘같은가, 다른가’를 구별하여 답한다.

가락 검사는 서양음악이 22문항, 한국음악이 8문항으로 되어 있다. 서양음악은 장조와 단조의 음계를 사용하였고, 한국음악은 한국의 오음음계를 사용하였다. 가락 검사는 17문항이 처음 두 음이 올라가는 패턴이고, 나머지 13문항을 처음 두 음이 내려가는 패턴이다.

3. 연구절차

초등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설문에 정성껏 답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설문지와는 다른 형식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를 제작한 후 서울 시내의 초등학교 2곳을 선정하여 초등학교 6학년 6개 학급의 담임에게 허가를 받았다. 2007년 7월, 허가받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6학년 학생들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한국음악적성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문의 각 문항과 음악적성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4. 자료처리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초등학생의 음악적 흥미, 가정환경, 음악적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하였으며 이변량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이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9세 이전의 음악적 경험이 이 후 음악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것을 통하여 어릴 적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밝히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1. 검사 신뢰도

학생들이 응답한 설문내용과 음악적성검사간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1) 리듬 신뢰도

<표-2> 리듬신뢰도 표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0.87	30

(2) 가락 신뢰도

<표-3> 가락신뢰도 표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0.83	30

사회 조사의 경우 검사신뢰도가 0.7 이상이어야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검사 결과 리듬 검사의 신뢰도가 0.87, 가락 검사의 신뢰도가 0.83으로 높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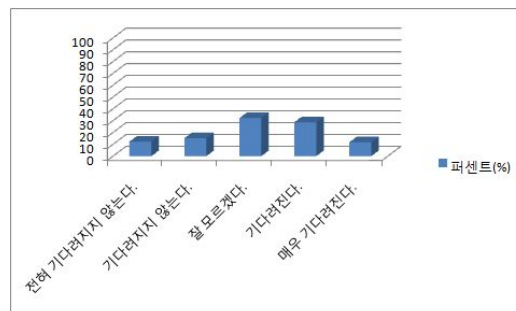
2. 빈도수

설문지의 각 문항별 응답에 대한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표-4>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응답	빈도	퍼센트(%)
전혀 기다려지지 않는다.	21	12.3
기다려지지 않는다.	26	15.2
잘 모르겠다.	55	32.2
기다려진다.	49	28.6
매우 기다려진다.	20	11.7
합계	17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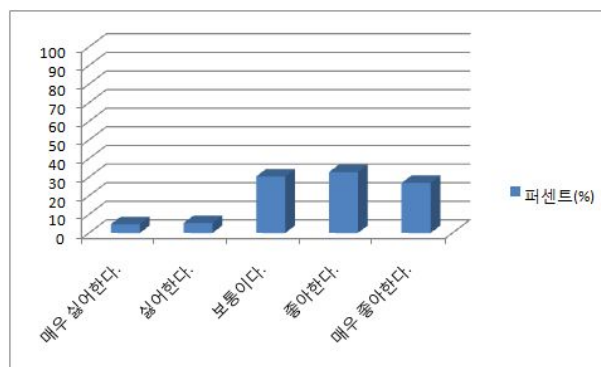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는가에 대한 질문에 171명 중 21명(12.3%)의 학생이 ‘전혀 기다려지지 않는다’고 답했고 26명(15.2%)의 학생이 ‘기다려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55명(32.2%)의 학생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49명(28.7%)의 학생이 ‘기다려진다’, 20명(11.7%)의 학생이 ‘매우 기다려진다’고 답했다. 여기서 약 40.4%의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표-5>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응답	빈도	퍼센트(%)
매우 싫어한다.	8	4.7
싫어한다.	9	5.3
보통이다.	52	30.4
좋아한다.	56	32.7
매우 좋아한다.	46	26.9
합계	17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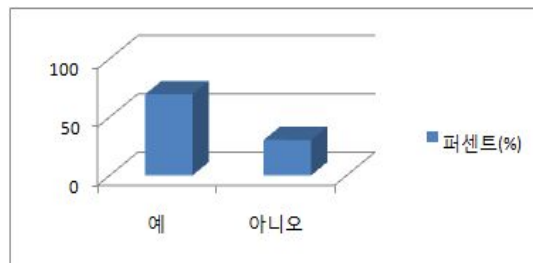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171명 중 8명(4.7%)의 학생이 ‘매우 싫어한다’고 답했고 9명(5.3%)이 ‘싫어한다’고 답하였으며, 52명(30.4%)의 학생이 ‘보통이다’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56명(32.7%)의 학생이 ‘좋아한다’고 답하였고 46명(26.9%)이 ‘매우 좋아한다’고 답하였다. 이를 통하여 171명 중 154명(90%)의 학생들이 보통 이상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가족 중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표-6> 가족 중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응답	빈도	퍼센트(%)
예	119	69.6
아니오	52	30.4
합계	17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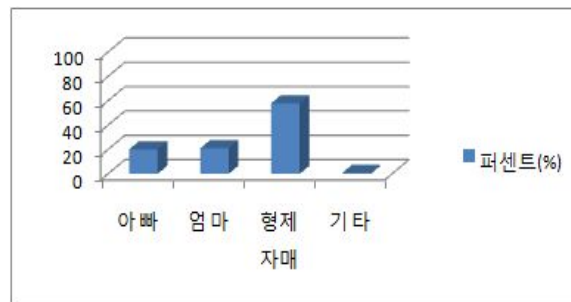


가족 중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171명 중 119명 (69.6%)의 학생이 ‘예’라고 답했고 52명(30.4%)의 학생이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여기서 171명 중 119명(69.9%)의 학생의 가족 구성원이 악기를 다룰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1) 누가 약기를 다룰 줄 압니까?

<표-7> 누가 약기를 다룰 줄 압니까?

응답	빈도	퍼센트(%)
아빠	24	20.2
엄마	25	21.0
형제 자매	69	58.0
기타	1	0.8
합계	1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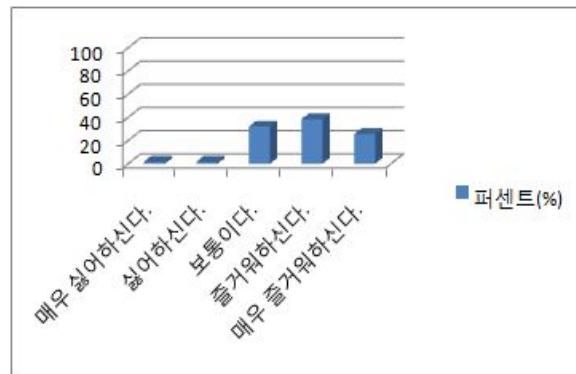


전체 171명의 학생 가운데 약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119명(100.0%)을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 중 누가 약기를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하여 물었다. 이에 대하여 ‘아빠’라고 대답한 학생은 전체 171명 가운데 24명(20.2%)이었고 ‘엄마’라고 응답한 학생은 25명(21.0%)이었으며 ‘형제 자매’라고 응답한 학생은 69명(58.0%)이었다. ‘기타’는 1명(0.8%)으로 할아버지가 약기를 다룬다고 답하였다. 이 설문문항에서 복수 응답을 한 학생은 없었다.

(4)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십니까?

<표-8>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십니까?

응 답	빈 도	퍼센트(%)
매우 싫어하신다.	3	1.8
싫어하신다.	3	1.8
보통이다.	55	32.2
즐거워하신다.	66	38.6
매우 즐거워하신다.	44	25.7
합 계	17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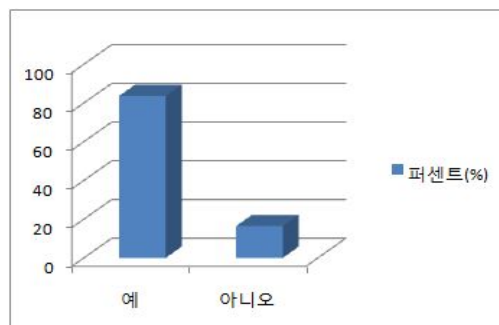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싫어하신다’라고 답한 학생이 전체 171명 중 3명(1.8%)이었고 ‘싫어하신다’ 역시 3명(1.8%)의 학생들이 답하였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55명(32.2%), ‘즐거워하신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66명(38.6%), ‘매우 즐거

위하신다'라고 답한 학생은 44명(25.7%)이었다. 이를 통하여 171명 중 165명(96.5%)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보통 이상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학교에서의 음악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습니까?

<표-9> 학교에서의 음악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습니까?

응 답	빈 도	퍼센트(%)
예	143	83.6
아니오	28	16.4
합 계	17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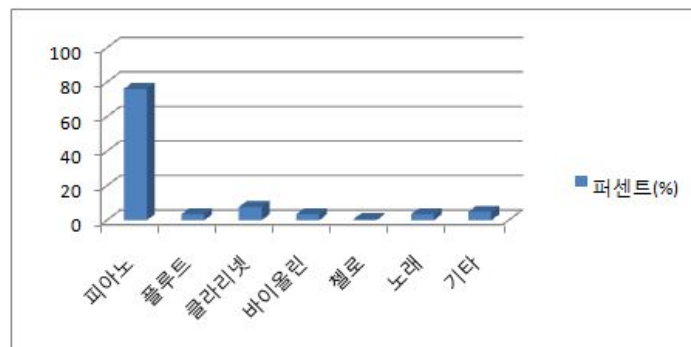


학교에서의 음악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171명 가운데 143명(83.6%)이었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학생은 28명(16.4%)이었다. 이를 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이외의 음악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a-1) 어떤 음악을 배웠습니까?

<표-10> 어떤 음악을 배웠습니까?

응답	빈도	퍼센트(%)
피아노	109	76.2
플루트	5	3.5
클라리넷	11	7.7
바이올린	5	3.5
첼로	1	0.7
노래	5	3.5
기타	7	4.9
합계	143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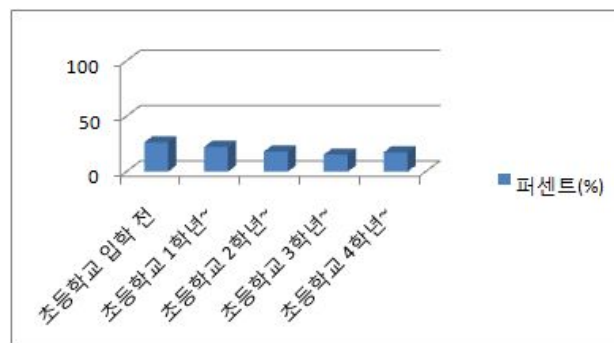
전체 171명 가운데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143(100.0%)명을 대상으로 어떤 음악을 배웠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109명(76.2%)의 학생이 ‘피아노’를 배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5명(3.5%)의 학생이 ‘플루트’를, 11명(7.7%)의 학생이 ‘클라리넷’을, 5명(3.5%)의 학생이 ‘바이올린’을, 1명(0.7%)의 학생이 ‘첼로’를, 5명(3.5%)의 학생이 ‘노래’를 배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응답은 7명(4.9%)으로 ‘가야금, 비올라, 기타 등’의 악기를 배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양한 음악 가운데서 피아노를 배운 학생이 109명(76.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 문항에서 복수응답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가장 오랜 기간 배운 음악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5-a-2) 언제부터 음악을 배웠습니까?

<표-11> 언제부터 음악을 배웠습니까?

응답	빈도	퍼센트(%)
초등학교 입학 전	38	26.5
초등학교 1학년~	32	22.4
초등학교 2학년~	26	18.2
초등학교 3학년~	22	15.4
초등학교 4학년 이후~	25	17.5
합계	143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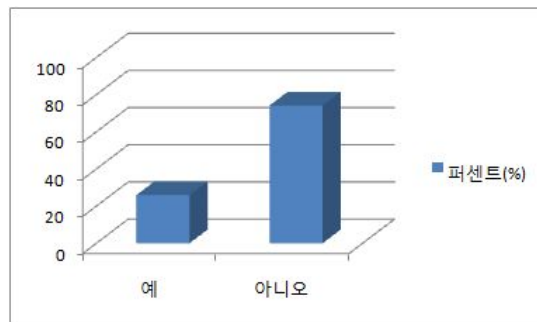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 143명(100.0%)을 대상으로 언제부터 음악을 배웠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배웠다는 학생이 38명(26.5%),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다는 학생이 32명(22.4%),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다는 학생이 26명(18.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다는 학생이 22명(15.4%),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 배웠다는 학생이 25명(17.5%)이었다. 이를 통하여 143명 중 118명(82.5%)의 학생이 만 9세(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a-3) 위 음악을 현재까지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까?

<표-12> 위 음악을 현재까지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까?

응답	빈도	퍼센트(%)
예	37	25.9
아니오	106	74.1
합계	143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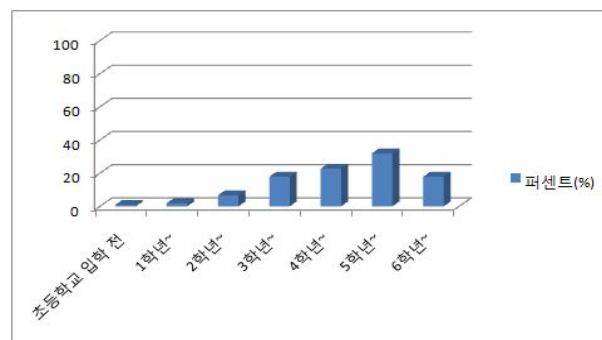


전체 171명 가운데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43명(100.0%)을 대상으로 위의 음악을 현재까지도 배우고 있는가에 대하여 물었다. 이 중 37명(25.9%)만이 현재도 배우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106명(74.1%)은 현재는 배우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즉,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현재에는 음악을 배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a-3-1) 언제 음악을 그만 두었습니까?

<표-13> 언제 음악을 그만두었습니까?

응답	빈도	퍼센트(%)
초등학교 입학 전	1	0.9
1학년~	2	1.9
2학년~	7	6.7
3학년~	19	17.9
4학년~	24	22.7
5학년~	34	32.0
6학년~	19	17.9
합계	106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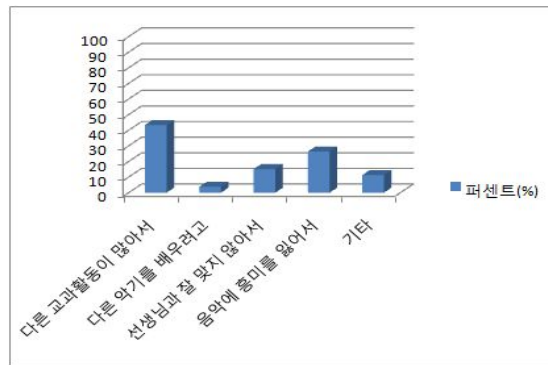


전체 171명 가운데 음악을 배운 적 없는 28명과 현재 음악을 배우고 있는 37명을 제외한 106명(100%)을 대상으로 언제 음악을 그만두었는가에 대하여 물었다. 이에 대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에 그만두었다는 학생이 1명(0.9%),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만두었다는 학생이 2명(1.9%),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만두었다는 학생이 7명(6.7%),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만두었다는 학생이 19명(17.9%)이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만 둔 학생이 24명(22.7%),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만 둔 학생이 34명(32.0%),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만 둔 학생이 19명(17.9%)이었다. 전체 106명 중 초등학교 저학년 때보다는 초등학교 4학년 이후인 고학년 때 (77명, 72.6%) 음악을 많이 그만두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a-3-2) 왜 그만두었습니까?

<표-14> 왜 그만두었습니까?

응답	빈도	퍼센트(%)
다른 교과활동이 많아서	46	43.4
다른 악기를 배우려고	4	3.8
선생님과 잘 맞지 않아서	16	15.1
음악에 흥미를 잃어서	28	26.4
기타	12	11.3
합계	106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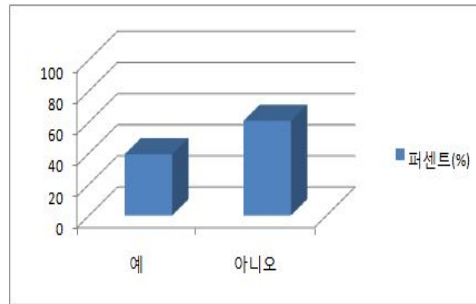
전체 171명 가운데 음악을 배운 적 없는 28명과 현재까지 음악을 배우고 있는 37명을 제외한 현재 음악을 배우고 있지 않은 106명(100%)을 대상으로 음악을 그만두게 된 이유에 대하여 물었다. 이에 대하여 ‘다른 교과활동이 많아서’라고 대답한 학생이 46명(43.4%)이었고 ‘다른 악기를 배우려고’라고 대답한 학생이 4명(3.8%), ‘선생님과 잘 맞지 않아서’라고 답한 학생이 16명(15.1%), ‘음악에 흥미를 잃어서’라고 답한 학생이 28명(26.4%)이었다.

‘기타’라고 응답한 학생은 12명(11.3%)으로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이사를 오면서 선생님을 구하지 못한 경우, 쉬기 위해서, 힘들어서 등이 있었다. 여기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커지는 다른 교과에 대한 부담과 음악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이 음악을 그만두게 되는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b-1) 음악을 배운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표-15> 음악을 배운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응답	빈도	퍼센트(%)
예	11	39.3
아니오	17	60.7
합계	28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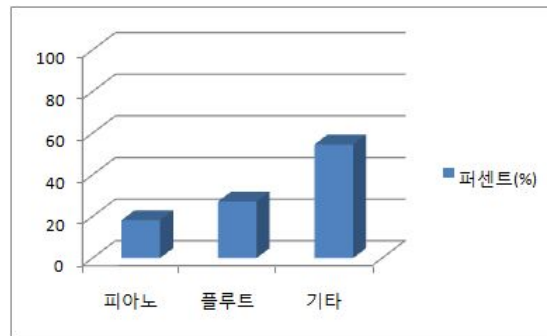


전체 171(100%)명 중 음악을 배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28명(100.0%)을 대상으로 음악을 배운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배우고 싶은가에 대하여 물었다. 이에 11명(39.3%)의 학생이 '예'라고 응답하였고 17명(60.7%)의 학생이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5-b-2) 어떤 음악을 배우고 싶습니까?

<표-16> 어떤 음악을 배우고 싶습니까?

응답	빈도	퍼센트(%)
피아노	2	18.2
플루트	3	27.2
기타	6	54.6
합계	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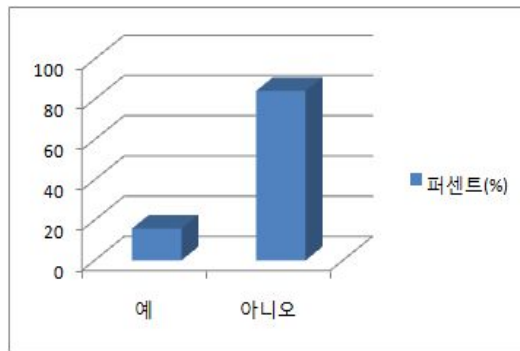


앞선 질문에서 음악을 배우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음악을 배우고 싶은가에 대하여 물었다. 이에 대하여 2명(18.2%)의 학생이 ‘피아노’를, 3명(27.2%)의 학생이 ‘플루트’를 배우고 싶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6명(54.6%)의 학생이 기타 응답으로 ‘하프, 드럼, 기타 등’을 말하였다.

(6) 현재 하고 있는 음악 활동이 있습니까?

<표-17> 현재 하고 있는 음악 활동이 있습니까?

응답	빈도	퍼센트(%)
예	27	15.8
아니오	144	84.2
합계	17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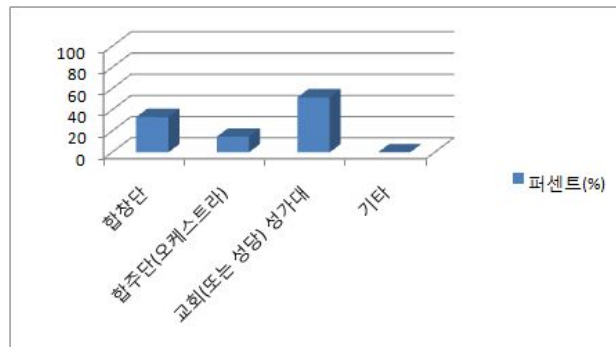


현재 하고 있는 음악활동이 있는가하는 질문에 전체 171명의 학생 중 27명 (15.8%)이 '예'라고 응답하였고 144명(84.2%)의 학생이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하여 많은 수 (144명, 84.2%)의 학생들이 음악활동의 경험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a-1)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표-18>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응답	빈도	퍼센트(%)
합창단	9	33.3
합주단(오케스트라)	4	14.8
교회(또는 성당) 성가대	14	51.9
기타	0	0.00
합계	27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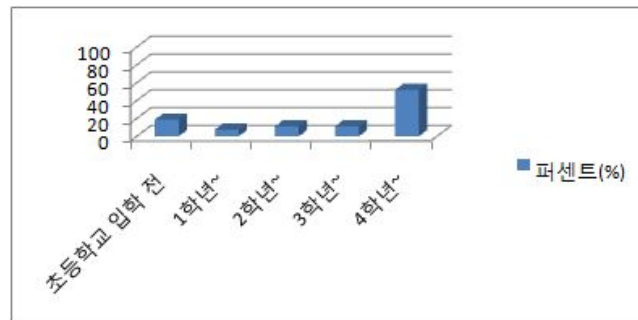


전체 171명 중 현재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7(100.0%)명을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합창단이 9명(33.3%), 합주단(오케스트라)이 4명(14.8%), 교회(또는 성당) 성가대가 14명(51.9%)으로 나타났다.

6-a-2. 위 음악 활동은 언제부터 하였습니까?

<표-19> 위 음악 활동은 언제부터 하였습니까?

응 답	빈 도	퍼센트(%)
초등학교 입학 전	5	18.5
1학년~	2	7.4
2학년~	3	11.1
3학년~	3	11.1
4학년 이후~	14	51.9
합 계	27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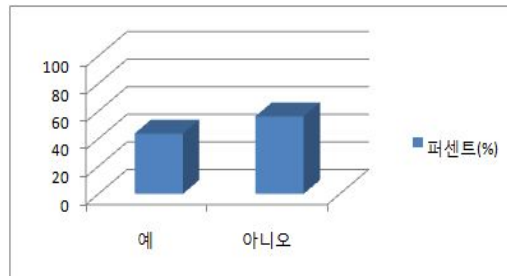


음악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음악활동을 언제부터 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는 5명(18.5%),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2명(7.4%),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3명(11.1%),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3명(11.1%),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는 14명(51.9%)이 응답하였다. 여기서 개인적인 음악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대부분(82.5%)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것과는 달리 합창단, 오케스트라와 같은 음악활동은 대부분(51.9%) 초등학교 고학년 때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b-1. 음악 활동의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은 생각 있습니까?

<표-20> 음악 활동의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응답	빈도	퍼센트(%)
예	63	43.8
아니오	81	56.2
합계	144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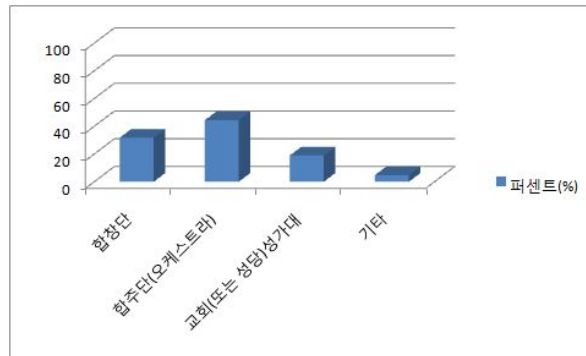


전체 171명 중 음악활동을 한 경험이 없는 144명(100.0%)을 대상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기회가 된다면 음악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하여 63명(43.8%)이 ‘예’라고 응답하였고 81명(56.2%)이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6-b-2. 음악 활동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표-21> 음악 활동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응답	빈도	퍼센트(%)
합창단	20	31.8
합주단(오케스트라)	28	44.4
교회(또는 성당)성가대	12	19.0
기타	3	4.8
합계	63	100.00



앞의 질문에서 ‘예’라고 응답한 63명(100.0%)을 대상으로 음악활동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고 싶은가에 대하여 물었다. 이에 ‘합창단’이 20명(31.8%), ‘합주단(오케스트라)’이 28명(44.4%), ‘교회(또는 성당) 성가대’가 12명(19.0%)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3명(4.8%)으로 밴드활동이라고 답하였다.

3. 상관관계

설문지의 각 문항과 음악적성검사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각 문항과 음악적성간의 상관관계 중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문항만 기재하였다.

(1) 리듬점수 · 가락점수와 다른 항목

<표-22> 설문문항과 리듬점수 · 가락점수와의 상관관계 표

문 항	리듬점수	가락점수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14	.36***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17*	.23**
가족 중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10	.15*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십니까	.07	.29***
학교에서의 음악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습니까	.19*	.34***
언제부터 음악을 배웠습니까	.34***	.30***
음악을 배운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33	.41*

***p<.001, **p<.01, *p<.05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질수록 리듬점수와의 상관관계는 $r=.14$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락점수와의 상관관계는 $r=.36$, $p<.001$ 로 통계학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을 기다리는 학생일수록 가락음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할수록 리듬점수는 $r=.17$, $p<.05$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가락점수 또한 $r=.23$, $p<.01$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음악에 대한 개인적 흥미가 높은 학생일수록 리듬음악성과 가락음악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개인의 음악적 흥미와 음악성간에는 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 중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는 학생과 리듬점수와의 상관관계는 $r=.10$ 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락점수와의 상관관계는 $r=.15$, $p<.05$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가정의 음악적 환경과 학생의 가락음악성간에는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학생일수록 리듬점수와의 상관은 $r=.07$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락점수와의 상관은 $r=.29$, $p<.001$ 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학생일수록 가락음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정에서의 음악적 지지와 반응이 가락음악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음악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리듬 점수와의 상관관계는 $r=.19$, $p<.05$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학교에서의 음악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가락점수와의 상관관계는 $r=.34$, $p<.001$ 로 통계학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개인적으로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리듬음악성과 가락음악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음악적 경험과 음악성 간에는 많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을 배운 시기가 이룰수록 리듬점수와 상관은 $r=.34, p<.001$, 가락점수와 상관은 $r=.30, p<.001$ 로 두 개의 항목 모두 통계학적으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일찍 음악을 배운 학생의 리듬과 가락음악적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을 배우기 시작한 시기가 이룰수록 음악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을 배운 경험은 없으나 앞으로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 학생과 리듬점수와 상관은 $r=.33$ 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가락점수와 상관은 $r=.41, p<.05$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음악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가락음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음악을 배우고 싶은 욕구와 가락음악성 간에는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설문문항 간 상관관계

<표-23> 개인의 흥미 간 상관관계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노래하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62***

*** $p<.001$, ** $p<.01$, * $p<.05$

노래하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과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는 학생과의 상관관계는 $r=.62, p<.001$ 로 통계학적으로 높은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인의 음악적 흥미가 반영된 것으로 노래하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 학교에서의 음악시간도 기다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24> 가정환경과 개인 흥미 간 상관관계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연주를 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십니까	.41***	.39***

***p<.001, **p<.01, *p<.05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를 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학생과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는 학생과의 상관관계는 $r=.41$, $p<.001$ 로 나타났고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를 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학생과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과의 상관관계는 $r=.39$, $p<.001$ 로 둘 다 통계학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가정에서의 음악에 대한 반응과 학생 개인의 음악적 흥미 간에는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25> 개인의 음악 경험과 개인의 흥미, 가정환경과의 상관관계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십니까
학교 음악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습니까	.31***	.21**	.16*

***p<.001, **p<.01, *p<.05

학교에서의 음악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과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는 학생 간에는 $r=.31$, $p<.001$ 의 통계학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학교에서의 음악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과 노래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간에는 $r=.21$, $p<.01$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음악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과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학생 간에는 $r=.16$, $p<.05$ 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학생 개인의 음악적 경험과 학생의 음악적 흥미, 가정에서의 음악적 환경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26> 음악을 배운 시기와 개인의 흥미 간의 상관관계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언제부터 음악을 배웠습니까	.17*

***p<.001, **p<.01, *p<.05

음악을 배운 시기가 이른 학생과 노래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학생 간의 상관관계는 $r=.17$, $p<.05$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 이것은 음악을 일찍 배운 학생과 개인적으로 음악에 흥미가 있는 학생 간에는 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27> 개인의 음악적 경험과 개인의 흥미, 가정환경과의 상관관계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십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음악활동이 있습니까	.25***	.30***	.22**

***p<.001, **p<.01, *p<.05

현재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과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는 학생 간의 상관계수는 $r=.25$, $p<.001$ 이고, 현재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과 노래

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간의 상관계수는 $r=.30$, $p<.001$ 로 둘 다 통계학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인다. 그리고 현재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과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를 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학생 간에도 $r=.22$, $p<.01$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 이를 통하여 개인의 음악활동 경험과 개인의 음악적 흥미, 가정의 음악적 환경 간에는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8> 개인의 흥미 간, 개인의 흥미와 개인의 음악적 경험 간의 상관계수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학교 음악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습니까	학교 음악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은 없으나 기회가 된다면 배우고 싶습니까
음악활동을 한 경험은 없으나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43***	.35***	.17*	.74***

*** $p<.001$, ** $p<.01$, * $p<.05$

음악활동을 한 경험은 없으나 기회가 되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학생과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는 학생간의 상관관계는 $r=.43$, $p<.001$ 을 나타내었고, 음악활동의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학생과 노래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간의 상관관계는 $r=.35$, $p<.001$ 로 둘 다 통계학적으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음악활동의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학생과 학교에서의 음악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간의 상관관계는 $r=.17, p<.05$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또한, 음악활동의 경험은 없으나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학생과 음악을 배운 경험은 없으나 기회가 된다면 음악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 학생간의 상관관계는 $r=.74, p<.001$ 로 통계학적으로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개인의 음악적 흥미와 관심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개인의 음악적 흥미와 음악적 경험 간에도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연구 요약

이 연구는 만 9세 이전의 음악적 경험과 개인의 음악에 대한 흥미, 가정환경과 음악성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설문에 대한 빈도수, 음악성 검사와 설문과의 상관관계, 설문문항 간 상관관계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설문에 대한 빈도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171명(100%) 중 102명(59.6%)의 학생이 ‘좋아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하여 많은 수의 학생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171명(100%) 중 110명(64.3%)의 학생이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신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하여 많은 수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음악을 연주할 때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학교에서의 음악 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에 전체 171명(100%) 중 143명(83.6%)의 학생이 배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하여 많은 수의 학생이 학원이나 가정에서 따로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음악을 배우기 시작한 시기에 대한 질문에 전체 171명(100%) 중 118명(82.5%)의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음악을 배웠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하여 많은 수의 학생이 만 9세 이전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43명(100%) 중 현재까지도 음악을 계속 배우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7명(25.9%)에 불과했다. 이를 통하여 많은 수의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현재에는 음악을 배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음악을 그만둔 시기로는 전체 106명(100%) 중 77명(72.6%)의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비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많이 음악을 그만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음악을 그만둔 이유로는 전체 106명(100%) 중 46명(43.3%)이 다른 교과활동이 많아서라고 응답했고, 28명(26.4%)이 음악에 흥미를 잃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커지는 다른 교과에 대한 부담과 음악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는 것이 음악을 그만두게 되는 큰 원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음악성 검사와 설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9세 이전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음악성은 리듬음악성과 가락음악성에서 모두 만 9세 이후에 음악을 배운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음악을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가 음악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음악을 일찍 배울수록 음악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개인의 음악에 대한 흥미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는 학생의 가락음악성이 높게 나타났고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의 음악성이 리듬음악성과 가락음악성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음악을 배운 경험은 없으나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 학생들의 가락 음악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음악에 대한 흥미와 음악성은 관련이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가정환경에 대해서는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학생의 가락음악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정환경과 음악성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개인의 음악적 경험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음악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음악성이 리듬음악성과 가락음악성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개인의 음악적 경험과 음악성 간에는 서로 관련이 있고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설문문항 간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래하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과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는 학생 간에는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인의 음악적 흥미가 반영된 것으로 노래하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 학교에서의 음악시간도 기다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를 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학생과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는 학생,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를 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학생과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간에는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정에서의 음악적 반응과 학생 개인의 음악적 흥미는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학교에서의 음악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과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는 학생, 학교에서의 음악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

이 있는 학생과 노래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은 좋아하는 학생, 학교에서의 음악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과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학생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생 개인의 음악적 경험이 학생의 음악적 흥미, 가정에서의 음악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음악을 배운 시기가 이른 학생과 노래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학생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음악을 일찍 배운 학생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으로 음악을 배운 시기와 개인의 음악적 흥미 간에는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현재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과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는 학생, 현재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과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현재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과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를 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학생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인의 음악적 경험과 개인의 음악적 흥미, 가정에서의 음악적 환경 간에는 서로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음악활동을 한 경험은 없으나 기회가 되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학생과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는 학생, 음악활동의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학생과 노래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음악활동의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학생과 학교에서의 음악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 음악활동의 경험은 없으나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학생과 음악을 배운 경험은 없으나 기회가 된다면 음악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 학생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개인의 음악적 흥미와 관심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개인의 음악적 흥미와 음악적 경험 간에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이 연구는 음악성이 형성되는 만 9세 이전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음악성과 개인의 음악에 대한 흥미, 가정환경, 개인의 음악적 경험과 음악성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만 9세 이전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음악성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다.

둘째, 개인의 음악에 대한 흥미는 음악성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가정에서의 음악적 환경은 음악성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개인적인 음악적 경험은 음악성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개인의 음악에 대한 흥미, 가정환경, 개인의 음악적 경험은 상호간에 밀접한 상관을 갖는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릴 적의 음악적 경험은 이 후의 음악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만 9세 이전(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음악성이 그 이후에 배운 학생들 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만 9세 이전에 음악을 배우는 것이 음악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는 학생이나 노래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과 같이 음악에 대한 개인적 흥미가 높은 학생일수록 음악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개인의 음악에 대한 흥미와 음악성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음악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가정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음악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가정환경과 음악성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음악적 경험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음악시간 외에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음악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개인의 음악적 관심과 음악성은 상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음악적 흥미와 경험, 가정에서의 음악적 반응과 환경은 음악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만 9세 이전의 개인의 음악적 경험과 더불어 여러 가지 주변의 음악적 환경들이 상호작용할 때 개인의 음악성은 더욱더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survey on the influence of musical education before the age of 9 on the development of musical talent

Oh, Nu ri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ccording to American music educator Edwin E. Gordon, musical talent is developed from birth up to the age of 9, and afterwards no longer developed. Many music educators agree with the Gordon's theory and accordingly, recommend preschool musical education. This essay is written to sh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musical talent of those who have experienced music before the age of 9 and that of those who have not. That is to say,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how how important preschool musical education 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musical talent.

The 171 student of 6th grade in an elementary school were chosen as a survey target. Questionnaire for surveying their musical experiences and 'Korean Music aptitude test' developed by professor Kyung-sil Hyun were

used. Collected data were computerized by using statistics program SPSS 12.0.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in order to get data of their musical interests, family environments, and musical experiences. Moreover, One way ANOVA and T-statistics were performed and bivariate correlation coefficient was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ose who have learned music before the age of 9 is more talented than those who have not.
2. There is a statistically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musical interest and the musical talent.
3. There is a statistically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environment and the musical talent.
4. There is a statistically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musical experience besides the music lessons in a school and the musical talent.

This essay approves that the earlier one learns music, the more one becomes talented for music. The writer hopes that more children have the opportunities to learn music in preschool education.

참 고 문 헌

<국내 단행본>

1. 김영연 저, 『유아 음악 교육론』, 서울: 학지사, 2002.
2. 김인실 저, 『유아 음악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형설 출판사, 2001.
3. 심성경, 이희자, 이선경, 김경의, 이효숙, 박주희 공저, 『유아음악교육』, 서울: 양서원, 2003.
4. 안재신, 『유아음악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4.
5. 온규탁, 『음악 예술 교육론』, 서울: 교학사, 1989.
6. 이진우·이순영, 『유아음악교육』, 서울: 창지사, 2001.
7. 이홍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8. 임혜정 지음, 『유아 음악 교육』, 서울: 태영출판사, 2006.
9. 현경실, 『한국 음악적성 검사』, 서울: 학지사, 2004.

<번역서>

1. Hoffer, Chals R. 저. 안미자 역. 『음악교육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8.

<학위 논문>

1. 신주현, 『가정의 음악환경과 예술교육 경험이 유아의 음악능력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2. 유성옥의 『유아의 음악경험과 음악성 발달과의 관계 연구: Amadeus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3. 홍희숙의 『가정의 음악적 환경에 따른 유아의 음악선호도 및 음악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부록1> 설문지 양식

안녕하십니까?

먼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질문지는 '초등학생의 음악적 경험이 음악성 신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답하신 내용은 학문적인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응답자의 신상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따라서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 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오 누리

※ 아래의 설명에 따라서 답해주십시오.

1쪽: 각 문항에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해주세요.

2~3쪽: 질문에 답한 후 화살표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이 '예', '아니오'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화살표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학교에서의 음악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 ① 매우 기다려진다.
- ② 기다려진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기다려지지 않는다.
- ⑤ 전혀 기다려지지 않는다.

2.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 ① 매우 좋아한다.
- ② 좋아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싫어한다.
- ⑤ 매우 싫어한다.

3. 가족 중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 ① 있다(3-1로 가세요). ② 없다.

3-1. 누가 악기를 다루나요?

- ① 아빠 ② 엄마 ③ 형제 자매 ④ 기타:

4.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십니까?

- ① 매우 즐거워하신다.
- ② 즐거워하신다.
- ③ 보통이다.
- ④ 싫어하신다.
- ⑤ 매우 싫어하신다.

B

